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주 품에

찬양 | 주 품에

기도 | 사랑의 하나님, 바쁜 하루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이사야 3:10~12

✦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의인)은 복을 받고, 잘못 사는 사람(악인)은 그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개역개정] ¹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¹¹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¹²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쉬운성경] ¹⁰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 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¹¹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서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¹²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의 갈 길을 무너뜨린다.



질문나눔

1. 이 본문은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요. 각각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하나요?
2.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삶의 이야기 |

1. 바르게 행동해서 마음이 뿌듯했던 적이 있나요?
2.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 고민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떤지 나눠봅시다.

축복 |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
()도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오늘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이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좋은 길로 이끄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 마음이 상한 자를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이사야 6:1~4

❖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거룩하다"를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는 천사(스랍)들을 본 장면이에요.

[개역개정] ¹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²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³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쉬운성경] ¹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²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 다녔다. ³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⁴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질문나눔

1.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요?
2.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나요?

삶의 이야기 |

1. 무언가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와!"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나요?
높은 산, 넓은 바다 등을 봤을 때의 느낌을 나눠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예요.
2. 천사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이 너무 좋을 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나요?

축복 | "거룩하다" 찬양받으시는 크신 하나님이 () (이)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어, 그 크신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살아가길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토록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게 해 주세요. 천사들처럼 우리 가족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